사원회사

MERITZ 메리츠화재

'한국의 경영대상 명예의 전당' 제막식

5월 24일, 메리츠화재 강남 사옥 27층에서 '명예의 전당 헌액 기념비' 제막식이 열렸다. 제막식에는 송진규 사장, 노승방 상근감사위원, 황순설 고객/상품총괄, 강태구 경영전략총괄 외 외빈으로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김종립 사장, 박내회 심사위원장, CS리더스클럽 허태학 위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심사위원장 박내회 교수는 "메리츠화재는 국내 기업들과 차별화 된 고객만족경영을 통해 국내 최고 기업의 반열에 올랐으며, 오늘 세워진 기념비가 수많은 기업들이 고객만족경영을 함에 있어 역사적인 증표가 되길 바란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에 송진규 사장은 "고객만족경영대상에 도전했던 지난 6년의 시간은 내/외향적인 성장을 이룩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임직원 모두 고객만족 활동의 추진동력으로 삼아 향후 손해보험업계 뿐 아니라 전 산업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객만족활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가족친화 경영대상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5월 21일 제2회 가족친화경영대상 시상식이 메리츠화재 송진규 사장,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 KBS 길환영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BS에서 열렸다. 메리츠화재는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총 253개 기업 중 자녀양육 지원, 근무여건 개선, 가족복지 증진 분야 우수 10개 기업에 선정되어 '자녀양육지원부문'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가족친화경영대상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발굴해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메리츠화재는 출산축하금제도, 직장어린이집,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출산부터 대학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자녀양육지원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송진규 사장은 "일과 가정이 균형 잡히면 임직원과 가족의 만족도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업무 성과도 향상된다며 실제로 메리츠화재는 최근 가족친화경영이 뒷받침 되어 업무성과도 높아지고 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화손해보험

경영혁신 전진대회 개최

한화손해보험은 6월 24~25일 양일에 걸쳐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한화인재경영원에서 전 임원 및 주요 부서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혁신 전진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대내적으로 '혁신활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대외적으로는 '고객 중심으로 새롭게 태어나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한화손해보험의 혁신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한화손해보험이 이번에 추진하는 '경영혁신'은 급변하는 보험시장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2020년 선도보험사 도약'이라는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본연의 업무는 물론 회사 전 부문에 걸쳐 새로운 혁신 체계를 정립하고 지속적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지향적(Market Driven) 경영 추구 △사업가형 책임경영 체계 확립 △Simple, Speedy, Smart한 방식 도입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한화손해보험은 사내에 '혁신위원회' 및 '혁신사무국'을 정식 기구로 신설하고 각 과제별 성과 책임자를 중심으로 하는 수행조직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CCM실천리더 정기운영위원회

한화손해보험은 2월부터 고객접전 서비스 실행력 향상을 위해 전국 지역단 우수 총무를 선발하여 양성과정을 거쳐 CCM실천 리더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5월 24일 각 지역단 리더 29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분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29명으로 구성된 CCM 실천리더는 각 지역단 內에서 서비스 표준 실천 모델 역할을 수행하면서, 현장에 맞는 맞춤식 수시 CCM 교육 및 Service Coaching, 고객접점 상황에 맞는 현장 개선 활동 및 Issue를 발굴하는 Innovator, 능동적 활동을 통해 CCM 문화를 조성하는 Creator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매월 자체 점검을 통하여 스스로 개선과제를 찾고 이슈를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실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진행하여 접점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반기 1회 CCM실천리더 워크숍을 개최하여 외부강사 초청강의 및 서비스 우수기업 벤치마킹 등을 통해 CCM 실천리더의 역량강화에 힘쓰며, CCM실천리더를 통해 고객중심경영 문화가 자연스럽게 고객접점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더 강화할 예정이다.

NEWS

롯데손해보험

'롯데 골드안심 재물보험' 출시

롯데손해보험은 다중이용업소뿐 아니라 기타 사업장과 공장 내 화재로 인한 재산손해에서부터 각종 배상책임, 강도손해, 법률비용손해까지 개인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롯데 골드안심 재물보험'을 6월 출시했다.

이 상품은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비례로 보상하는 기존 화재보험과는 달리 화재로 인한 실제재산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해 화재보험 가입고객의 보장공백을 최소화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화재손해뿐 아니라 화재배상책임 보장으로 인명피해 및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상하며 붕괴, 침강 및 산사태 등으로 인한 재산손해 시에도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전액 보상한다. 영업중단으로의 손해도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여러 법률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법률비용손해 특약을 신설해 민사소송진행 시 소요되는 소송비용과 부대비용을 보장한다.

품격헌장 제정 선포식 개최

롯데손해보험은 6월 5일, 본사 대강당에서 전 간부 및 1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존중문화 및 공정한 윤리 환경을 조성하고 품격 유지를 통한 존경 받는 기업문화를 창출하기 위하여 '품격헌장 제정 선포식'을 개최했다.

품격헌장은 구성원간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품격 있는 언행 생활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건전한 음주문화 정립 △도덕적 윤리와 제 법규 준수를 통한 품위유지 등의 4대 품격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

선포식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회사의 품격을 유지하고 존경받는 기업문화 창출을 위해 품격 헌장 행동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실천하겠다'고 선서했다.

선포식을 주재한 이봉철 대표는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구성원 간 상호존중을 통해 품격 있는 기업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품격헌장을 선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의 윤리의식과 품격 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G손해보험

MG손해보험 공식 출범

MG손해보험이 5월 6일 서울 역삼동 본점에서 신설법인 출범식을 개최하고 공식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번 출범식 행사는 새로 취임한 MG손해보험 장유환 이사회의장 및 김상성 대표이사를 비롯한 내빈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취임식, 사명선포식, 직원선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상성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MG손해보험을 경쟁력 있는 회사로 만들겠다는 각오 하나로 이 자리에 섰다"며 "고객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 차별화된 보험서비스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창의, 열정, 도전의 정신이 살아있는 MG손해보험이 되자"고 말했다. 한편, 앞서 3일 열린 이사회 및 주총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쌓아온 리더로서 새로운 MG손해보험의 시대를 이끌어 갈 초대 경영진으로 장유환 이사회의장과 김상성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했다.

'(무)닥터M 간병보험' 출시

MG손해보험은 장기요양 진단비와 간병지원금을 최대 100세까지 보장하는 '(무)닥터M 간병보험'을 6월 3일 출시했다. '(무)닥터M 간병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3등급 판정에 따라 요양보험 지급 급여와 별개로 진단비, 간병지원금을 보장하고 유족연금, 실손의료비, CI질병보장 등을 추가로 설계할 수 있는 '간병통합보험'이다.

우선 기본보장인 장기요양 진단비는 초기 치료비에 보탬이 되도록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장기요양 간병지원금은 5년 간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해 장기 간병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CI(말기폐질환, 말기간경화, 말기신부전증)질병보장은 물론 실손의료비, 상해 및 질병 입원 · 수술비 담보를 마련해 각종 노후의료비를 빈틈없이 집중 보장한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고령화로 치매 등 노인성질환 발생 증가하면서 노년층의 간병문제와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든든한 보장으로 노후를 따뜻하게 지켜주는 '(무)닥터M 간병보험'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원회사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윤순구 신임 대표이사 선임

흥국화재는 6월 14일 서울 신문로 본사빌딩에서 제67기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윤순구(56)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윤 신임 대표는 1983년 동양화재(현 메리츠화재)에 입사해 기획 · 마케팅, 상품 및 보험업무 등 핵심 업무를 두루 거쳤다.

윤 대표의 취임식은 6월 17일 열렸다. 윤 대표는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며 "철저하게 수익중심으로 지속성장 하는 회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FY2012 연도대상 시상식 개최

흥국화재는 흥국생명과 함께 5월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양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및 수상자 5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Y2012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흥국생명의 보험왕인 연도대상은 한라지점 고순실 설계사(FC), 신인상은 경인지점 오윤용 FC가 각각 수상했다. 흥국화재 연도대상은 해남지점의 양명화 FC가, 신인상은 목포지점의 곽재상 FC가 각각 선정됐다.

특히 흥국생명의 보험왕인 고순실 FC는 이번 수상으로 총 3번의 챔피언의 영예를 안았다.

고순실 FC는 영업 비결에 대해 "고통 없이는 성과가 없다"며 "꾸준한 노력으로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첫 보험왕에 오른 흥국화재의 양명화 FC는 "무엇보다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고객 섬김의 자세'가 성공의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SAMSUNG 삼성화재

'고객만족경영'으로 중국 시장 공략 나서

삼성화재는 5월 8일 중국 상하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삼성직소차험(三星直銷車險)」 런칭 행사를 갖고 국내 손해보험사 최초로 중국 직판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삼성이 만든 자동차보험'이라는 슬로건 아래 상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로컬 시장에서 본격적인 영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3월 출범한 고객만족위원회를 중심으로 '고객만족'을 최우선 경영 가치로 삼기로 했다.

고객만족위원회는 중국 상해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조교려(赵皎黎) 부주임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고객패널 9명, 삼성화재 관계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중국 내 보험사의 서비스 문제점과 고객 불만 유형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영에 반영해 고객지향 기업문화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제7회 실종아동의 날 맞아 "착한 릴레이 캠페인" 출범

삼성화재는 보건복지부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실종아동전문기관)와 함께 5월 24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제7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를 갖고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착한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실종아동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실종 예방의 중요성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삼성화재의 아이디어 재능기부와 후원으로 기획된 '착한 릴레이 캠페인'은 실종가족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고 실종 · 유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실종 아동 찾기의 새로운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착한 릴레이 캠페인'은 아이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오뚝이' 모양의 등신대로 제작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심 곳곳에 설치하고, 실종아동 정보를 확인한 시민들이 등신대를 자발적으로 다양한 장소로 옮겨 주는 방식이다. 부모가 직접 아이를 찾기 위해 헤매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참여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실종아동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접할 수 있다.

NEWS

현대해상

아주 사소한 고백 서포터즈 2기 발대식

현대해상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부,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함께 지난해부터 '아주 사소한 고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아주 사소한 고백' 서포터즈 2기 발대식이 지난 4월 25일 현대해상 광화문 본사에서 있었다. 이번 '아주 사소한 고백' 서포터즈 2기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지원했으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최종 25명이 선정됐다. 서포터즈 2기는 내년 3월까지 청소년들의 진심이 담겨 있는 '고백 엽서'의 선별과 홍보, 포스터 촬영 등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게 되며, '카운슬링 콘서트', '고백캠프' 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현대해상 사회공헌활동인 '아주 사소한 고백' 프로젝트 청소년들이 엽서나 페이스북,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위로를 받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치유되도록 하는 프로젝트이다.

CS Win-Win 서비스 단체 협약식

현대해상은 5월 21일 여의도 태영 T-아트홀에서 있었던 제6기 CS Win-Win 서비스 단체 협약식에서 교통안전공단과 고객만족경영 서비스 협약을 맺었다.

CS Win-Win 서비스 단체 협약식은 CS 우수 기업과 상대적으로 CS에 취약한 공공기관이 CS협약을 맺는 제도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CS리더스클럽 주관으로 마련됐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단체 협약식에는 현대해상을 비롯한

12개 멘토사와 세종문화회관, 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한 15개 멘티사가 참여했으며, 현대해상은 2008년과 2009년 대구광역시, 2010년 서울메트로, 2011년과 2012년 세종문화회관과의 협약에 이어 올해는 교통안전공단과 고객만족경영 서비스 협약을 맺었다.

LIG 손해보험

'LIG매직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출시

LIG손해보험은 4월 1일을 기해 고객이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상품인 'LIG매직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LIG매직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은 오프라인 자동차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평균 13.4% 저렴하면서도 기존 LIG손해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상서비스와 긴급출동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가입했을 때와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을 다이렉트로 저렴하게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층의 수요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장 트렌드를 반영해 다이렉트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진입 초기에 무리한 공격 영업을 하기 보다는 시장에 빠른 시일 내에 연착륙하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96년 국내 최초의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인 '매직카서비스'를 선보이며 일대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LIG손해보험은 오랜 기간 축적해온 보상서비스 경쟁력과 600여 개소로 구성된 전국 보상망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양쪽에서 자동차보험 시장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정의 달 5월 '희망의 꽃' 피운다

LIG손해보험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전사적인 나눔 캠페인 '희망봉사한마당'을 진행했다.

지난 4월, 조직개편을 통해 손해보험 업계 최초로 CEO 직속 조직인 'CSR담당'을 신설한 바 있는 LIG손해보험은 이번 '희망봉사한마당' 캠페인을 통해 나눔경영 철학과 문화를 회사 전체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5월 나눔 캠페인의 전면에는 전국 120여 개 봉사팀으로 구성된 'LIG희망봉사단'이 있다. 2005년 발족돼 9년째 꾸준히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LIG희망봉사단은 전 임직원의 참여 속에 오는 5월 한달 간 전국 방방곡곡의 소외 이웃을 찾아 희망을 함께 나누는 일에 앞장섰다.

전체 임직원과 영업가족이 참여하는 자선바자회도 개최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 가정에 새 보금자리를 지어주는 '희망의 집짓기' 사업도 5월에 꽃을 피웠다. 제주도와 강원도 동해, 그리고 경기도 평택에 총 3채의 '희망의 집'이 이미 완공됐거나 곧 완공을 앞두고 있다.

사원회사

동부화재

손보업계 최초 지분투자를 통한 중국 보험시장 진출

동부화재는 아시아 최대시장인 중국 보험 시장에 현지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합자방식의 원수사 경영을 통한 현지 사업역량 선 확보를 위해 중국 안청손해보험사 지분 15.01%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4월 25일 대치동 동부금융센터에서 동부화재 김정남 사장과 안청손해보험사 화유생 이사장이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동부화재는 중국 보험시장의 높은 진입장벽과 여러 가지 제약 등으로 인해 외국보험사의 성장과 수익성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여러 해 동안 진출 형태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지 손해 보험사의 지분투자를 통한 차별화된 중국보험시장 진출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동부화재는 이번 지분투자 결정으로 다음 달까지 지분취득 및 해외 직접투자 관련 인허가를 추진하고 2013년 상반기까지 안청손해보험사를 동부화재가 지분 참여한 합자법인으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2012 연도상 시상식 개최

동부화재는 4월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800명의 국내외 대리점 대표, 설계사 및 수상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연도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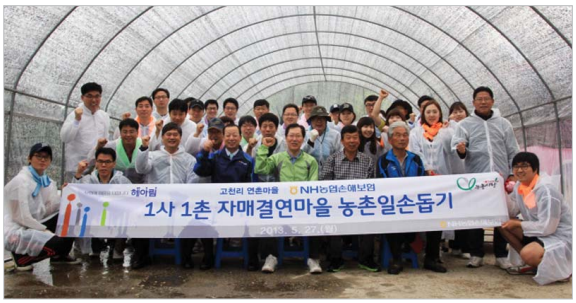
동부화재 김정남 사장과 관련 임직원들이 함께 참석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부천사업단 부천지점의 박금란씨가 설계사부문에서, 중앙사업단 서울대리점 이복남씨가 대리점 부문에서 각각 판매왕에 올라 연도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설계사부문에서 3년 연속 판매왕좌에 오른 박금란씨는 작년 한해 신계약건수 1,067건, 수입보험료 35억을 기록하면서 Royal DBRT에 등극했다. Royal DBRT는 판매왕을 3회 연속 올랐을 때 주어지는 동부화재 최고의 명예 전당이다. 또한 대리점 부문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이복남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작년 한해 신계약건수 1,898건, 수입보험료 31억을 기록했다.

한편 동부화재는 작년부터 연도상 수상자들과 동부문화재단이 함께 글로벌 사랑 나눔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

영농철 농촌 일손돕기 실시



NH농협손해보험은 영농철을 맞아 5월 27일 1사 1촌 마을인 인천시 강화군 소재 연촌마을에서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일손돕기에는 김학현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40여명이 참여했으며 종일 내리는 빗속에서 연촌마을 주민들과 함께 고구마순 심기 작업을 하는 등 1사 1촌 관계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작업 후에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해 농가의 애로사항 등을 듣는 것은 물론 향후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 방법들을 모색하는 등 1사 1촌 마을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농협손보는 지난해 5월 도농상생의 틀 형성을 위해 '연촌마을'과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특산물 구입 및 농번기 일손돕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브랜드 '헤아림' 선보여

NH농협손해보험는 5월 1일 회사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헤아림'과 브랜드 슬로건 '보험에 마음을 더합니다'를 선보였다. '헤아림'은 고객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로 마음씀이 남다른 기업,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기업이라는 농협손보의 목표와 의지를 담고 있다.

또 슬로건 '보험에 마음을 더합니다'는 브랜드 '헤아림'의 지향가치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고객을 대하는 회사의 마음가짐을 담고 있다고 농협손보 측은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새롭게 선보인 브랜드 및 슬로건을 신상품 개발에는 물론 마케팅과 영업, 서비스 등 회사 전 분야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헤아림'이 담고 있는 메시지 전파를 위해 대외 커뮤니케이션도 활발히 전개할 계획이다.

KFPA NEWS

이기영 이사장, 미국 NFPA 및 UL 방문

KFPA 이기영 이사장은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방화협회(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와 UL(Underwriters' Laboratory) 등 해외 방재기관을 방문하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방화안전행사인 『2013 NFPA 세계안전 컨퍼런스 및 엑스포』를 참관하였다.

이기영 이사장은 NFPA와 NFPA 발간물에 대한 인가 및 배포 협약을 갱신하고, 양 기관의 업무협력 및 기술교류 확대방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1894년 보험회사에 의해 설립되어 세계적인 방재기관으로 성장한 시카고 근교의 UL본부를 방문하여, 연구소 투어 및 화재시험 시연을 관람하고 UL과 KFPA 부설 방재시험연구원(FILK)의 상호 업무협력과 기술 · 인적교류 방안을 논의하였다.

NFPA는 1896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방재전문기관이며, NFPA에서 제정한 미국화재안전기준(NFC)은 화재 분야의 국제기준으로 통용되고 있을 만큼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KFPA는 지난 1973년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이래 1995년 NFPA와 「인가 및 배포 협약」을 체결(3년마다 협약 갱신)한 후, 2년여 간의 작업 끝에 세계 최초로 NFC 전문(292개 코드, 17,000여 쪽)을 완역하여 국내 · 외에 배포함으로써 우리나라 방재기술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방재시험연구원 개원 27주년 맞아

KFPA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은 4월 11일, 개원 27주년을 맞이하여 직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방재시험연구원 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기념식수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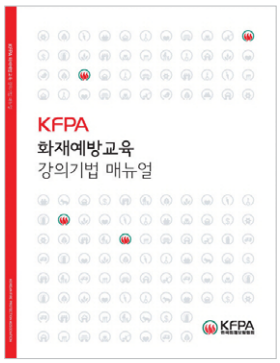
이기영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방재시험연구원의 연구업무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의 대형 국책연구사업, 첨단 도시개발사업, 미래 해양산업기술 개발사업, 차세대 핵심 소방기술 개발사업 등 첨단화 · 다양화 · 대형화되었다"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어서 「보험산업을 위한 최고의 방재기술서비스 제공」이라는 연구원의 비전 달성을 위해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통한 방재기술 인프라로서의 공익적 기능에 충실 ▲국책 연구과제 등 대형 연구프로젝트 참여 및 자연재해 연구사업 확대 ▲고객 중심의 마음가짐으로 최고 품질의 지식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지금까지의 결실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방재기술 안전망으로서 연구원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하였다.

방재시험연구원은 1986년 방재관련 시험연구를 통한 '방재기술의 세계화 및 보험산업의 과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이래, ▲방화제품에 대한 시험 ▲첨단 방재기술 연구 ▲전문가 방재기술교육 ▲ISO/TC92(화재안전분야) 국제표준 개발 ▲화재원인조사 ▲FILK 인증제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미국, 일본, 노르웨이,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선박물건 형식승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해외로 수출하는 선박관련 물품에 대한 시험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 FMRC, 중국 상해소방연구소, 일본 JTCCMM,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청, 서울소방학교 등 국내 · 외 기관들과 MOU 체결 및 협력사업을 실시하는 등 연구원의 기술력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화재예방교육 강의기법 매뉴얼』 발간



KFPA는 지난 3월 화재예방교육 담당자가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교육 강의기법 매뉴얼』을 발간하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방방재청 등 정부부처, 전국의 시 · 도 교육청 및 소방본부, 안전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화재예방교육 강의기법 매뉴얼』에는 교육실시 전후 준비사항, 연령별 고려사항 및 효과적인 강의기법 등이 교육대상에 따라 어린이 및 성인용으로 나뉘어 수록되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활동 사례와 교육평가 및 효과분석 방법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어, 화재예방교육을 전담하는 강사뿐만 아니라 화재안전지식이 필요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의 선생님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 화재예방교육 실시

KFPA는 안전하고 행복한 청소년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2013년 4월 23일부터 10월까지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 1,600명을 대상으로 총 48회에 걸쳐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소년 수련시설이란 수련 · 교류 · 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정해놓은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화재예방교육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화재위험과 대책, 화재사례, 화재 시 피난 및 대처요령, 각종 소화설비 등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KFPA의 전문강사들이 교육장소에 방문하여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음식물조리 시 가스취급 부주의, 이용 어린이 및 청소년의 불장난 등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높으며, 시설 내부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다수의 어린이 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시 긴급대피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KFPA 관계자는 "지난 1999년 6월 30일 화성 씨랜드 화재로 인해 어린이 등 총 23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빼앗긴 적이 있다"며 "이와 같은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화재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종사자들의 화재예방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인사이동

〈승 진〉

□ 이사대우
- ▲ 감사실장 이유식
- ▲ 방재시험연구원 부원장 이두형

□ 부장
- ▲ 교육홍보팀장 김인태
- ▲ 경기강원지부장 황건만
- ▲ 교육사업팀장 정광웅

□ 차장
- ▲ 정보전산팀장 최성규
- ▲ 고객서비스팀 유근호
- ▲ 중앙지부 변준호

□ 과장
- ▲ 인사회계팀 여한승
- ▲ 특수보험팀 이보영
- ▲ 방내화팀 서희원
- ▲ 화재환경시스템팀 양우진

〈전 보〉

□ 팀장 · 지부장
- ▲ 경영기획팀장 김원철
- ▲ 총무팀장 박영근
- ▲ 조사연구팀장 우유진
- ▲ 서베이팀장 최상종
- ▲ 특수진단팀장 김광섭
- ▲ 중앙지부장 손영진
- ▲ 부산경남지부장 박태완
- ▲ 대구경북지부장 최상두
- ▲ 인천지부장 이상현
- ▲ 대전충청지부장 최의현
- ▲ 광주호남지부장 백광현
- ▲ 업무지원팀장 이복영
- ▲ 화재조사센터장 김보욱

□ 부지부장
- ▲ 경기강원지부 부지부장 안갑철
- ▲ 대구경북지부 부지부장 이기완
- ▲ 부산경남지부 부지부장 조영진
- ▲ 대전충청지부 부지부장 김기옥
- ▲ 경기강원지부 부지부장 문종상
- ▲ 광주호남지부 부지부장 차영환

(이상 2013년 6월 1일자)